



첫 주례회동 마친 문 대통령과 김 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년 역량 강화 계속 지원”

우범기 정부부지사, 사회적경제 기업 근무 청년 혁신가들과 간담회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17일 사회적경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혁신가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소통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우 부지사는 전북도 청년 유입·정착을 위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원사업 현황 우수사례 발표 등 청년 혁신가들과 소통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배치해 사업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며, 사회적경제 분야에 취업하는 청

년들에게 2년간의 인건비 지원과 지원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창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청년혁신가 196명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서 마케팅·사무·기획·행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부지사도 참석한 청년들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소통했다.

나이름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태환씨는 “20년 정도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생활했는데, 이 사업의 참여로 군산에 정착할 수 있었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며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들녀시폼”에 근무하는 이은광씨는 “도내 기업들에는 가능성 있는 젊은 인력을 청년들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 신규채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부지사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청년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꾸준히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전북도가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이 희망이다’

민중 도당 청년위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지난 15일 부안에서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 병)을 비롯해 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리고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발대식은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청년이 바라는 지역 혁신 토크 콘서트(청·바·지)를 갖고, 지역 혁신에 대한 방안 논의와 청년 정책 제안 등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전북도에서 그 중심에 선 청년위원회가 발대식을 개최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청년세대 지지를 받고 성장한 더불어민주당인데 막상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 전북도당 청년위원회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청년위원장을 맡고있는 장경태 의원은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축하한다”며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는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도당 청년위원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전북 청년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전북 청년을 위해 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학교 내 언어순화운동 권장

김이재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내 언어순화운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권장계획의 수립,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실천사항,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주도

로 진행된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내 언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본 조례를 기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습관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마련될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 돼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대, 도민 참여해야

홍성임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홍성임(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제안제도,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 방안과 성별영향평가에 관계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홍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번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한미 정상회담, 백신협력 강화 계기로”

문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

“미국 방문,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계기로
경제 회복세 온기,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
일자리 급선무… 민간 일자리 창출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訪美)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집중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급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흐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해 올해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이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을 본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져야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라면서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 흐름이 몇 달 더 이어져야 코로나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특히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 디지털과 그린, 혁신벤처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인공지능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다”며 “기업 수요에 맞

춘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인과 구직 사이의 일자리 부조화를 빠르게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격차가 큰 청년들과 일자리의 이점이 필요한 분들에게 미래에 맞는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하고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당사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당연히 힘써야 할 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분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계금융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포용적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17일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농산물검사소를 찾아 검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도의회 환복위, 농산물검사소 찾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7일 전주 농산물검사소와 익산 소재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 소관)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농산물검사소”를 방문, 5월부터 개시한 농산물 검사업무의 진행상황 및 현황보고를 청취했다.

“농산물 검사소”는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과 도내 공영도매시장 등에 유통되고 있는 잔류농약을 검사함으로써,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삼각농정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농산물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이어 고농도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권 대기환경연립환경과학원 소관)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을 통한 저감방안을 마쳐 우리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의회는 각종 사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정책점검과 더불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전북도의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문건위, 지리산 테마관광 공원 조성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7일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남원 ‘지리산 테마관광 공원 조성사업’, ‘가야유적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문건위원들은 남원 지리산 테마관광 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했고, 이곳이 지리산을 대표 하는 관문으로서 상징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했고,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철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고분군은 지난 1월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제출해 3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

특히, 올해 8월~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의 현지실사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20~21일 예결위 심의
거쳐 최종 의결 예정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17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쳤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3조4,249억원 대비 4.8%(인 1,630억원)이 증가한 3조5,879억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어,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던 본예산 삭감사업 ‘실내 통합놀이 활동실 환경조성비’ 일부를 포함한 4억7,250만7,000원을 삭감했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0일과 21일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선거방송토론위

고교생 열린 토론회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 전북 고등학생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진행됐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인 1팀을 구성해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메일(jelection@naver.com)로 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전북선거관리위원회(http://j.nec.gov.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선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서류 및 동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해 본선에 진출할 4팀을 선발하고, 본선은 7월 14일 전북선거관 회의실에서 토너먼트 대면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에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장학금이 수여되며,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팀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대회에 전북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부여한다. /유호상 기자